

##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를 읽고 (2)

姜虛峰

또 다시 『폴톤』은 말한다.

『人類의 如何한 生産物일지라도 無限의 量에 到達할 수는 없다. 他方에 있어서 稀有한 物品이라 할지라도 何等의 價値를 具有한다면 어니 程度의 有用性을 保有할 必要가 있다.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라는 그들의 性質上(은침업는 相互 排斥을 하면서 잇스나 또 一面으로는 如斯한 相互 連繫의 運命을 가지고 있다.』

『폴톤』의 理論的 發展은 이리하여 使用價値와 交換價値의 相互排斥性을 發見하였나니 이 發見은 『폴톤』으로 하여 自家經濟 理論을 混亂케 하였으며 自家의 理論으로 하여 改造派 『썰조아[부르조아]』 經濟學에까지 流落케 하였다. 이럼으로 社會 變革 過程의 經濟學的 說明을 生産과 生産手段의 矛盾이라는 原因論的 見地에서 說明치 못하고 社會 變革의 經濟學的 說明을 消費의 不公平이란 結果論的 見地에서 說明하고 마렸다.

▽……………△

그러면 『샤쿠닝[바쿠닌]』은 엇더한 政治理論(勿論 無政府主義者는 政治行動을 否認하는 以上 政治理論을 가질 理는 업겠지만, 筆者의 理論 展開와 便宜上이런 말을 씀)은 엇더 하였던가? 이를 『샤쿠닝』 自身の 理論에서 들어보자.

『國家는 벌서 自體로써는 君主國이라 하지 안코 共和國이라 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國家란 形態에서는 조금도 變함이 업다. -- 卽 能力 잇는 사람의 最少數 天才, 卓能 또는 有德한 사람들이며 이 큰 하기 어려운 그리고 놀라운 少年인 人民의 行爲를 警戒하며, 또는 指導한 사람들의 最小數에 依하여 官能的으로 또는 規則적으로 設定된 後見人이다. 이 國家의 官吏와 學校의 教授와는 自稱 共和主義者라 부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後見人이 아닌 사람은 업스며 牧童이 아닌 者는 업다. 그리고 그 人民들은 그

들의 過去 形態 그대로 依然이 羊群이었던 것을 잊지 안흔 것이다. 羊群이 居住하는 곳에는 그 毛皮를 取하며 肉喰하는 者가 반드시 存在할 것이니 그 들 警戒할 必要가 있다.』(神과 國家)

『쌀조아』 國家 形態를 그 얼마나 皮相的, 結果論的으로 批判하자 안헛느냐? 國家形態 構成에 있어서 그 基礎가 되는 社會의 經濟組織 關係는 『싸쿠닝』의 眼中에는 업섯든 것이다.

▽.....△

『싸쿠닝』의 理論은 進展한다. 『唯物主義는 人間性을 動物性的의 發展한 것으로 보며 理想主義는 大罪를 動物性的의 生産物로 認識한다. 그럼으로 이를 抑壓하랴므로 神性으로부터 出發한다. 唯物主義는 自由意志를 否定하면서 그러나 自由의 確立을 目的하야, 理想主義는 人間至上의 名目下에서 自由意志를 主張하면서 自由를 抑壓하는 權力을 建設하는 것이다.』(同著) 唯心論을 否認한 『싸쿠닝』은 唯物論까지 排斥하얏다. 이리하야 그는 『후오엘박타』의 論敵이 되엇스며 맑스主義 運動의 反對者가 되엇는 것이다.

◇.....◇

그러나 그는 唯物的 見地에서 社會 變革을 高調하얏스니 『萬人의 要求(筆者註...消費)를 眞正한 共同 一致로 하며 各自의 物質的 쏘는 社會的 興味를 各自의 人間的 義務에 一致케 하다. 그리고 이 目的을 爲하야서는 唯一의 手段이 잇슬 쏘이니 不平等의 制度 一切를 打破하며 萬人의 經濟的 쏘는 社會的 平等의 確立 이것이다. 이리하야 이를 基礎로 하야서만 萬人의 自由, 道德, 共同一致의 人間世界는 展開될 수 잇다.』(同著)

◇.....◇

이 얼마나 目的에 熱中하야 手段, 方法을 沒却한 理論이나? 이럼으로 『싸쿠닝』에 잇서서는 『앵겔쓰』의 所謂 『國家의 廢止와 國家의 消滅』이란 重要한 理論的 區別을 認識하지 못하얏스며 『레-닝[레닌]』의 『國家革命』 第三章에 展開된 社會變革 過程의 中間階段(無產階級 獨裁政治 過程)을 숨에도 豫想치 못하얏든 것이다.